# 광주·전남 잇단 계 파동

## 계주 잠적 등 억대 피해 속출…서민 신용망 무너져

최악의 경기 불황과 금융 위기 속에 서민들의 목돈 마련 수단인 계(契)를 둘러싼 신용망까지 붕괴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다복회 사건'이 충격을 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계(契)' 모임이 깨지는 등 수억원대의 계 파동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자 그 영향이 계모임 등 사인간의 금융거래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받거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전래의 협동 조직인 '계'가 경기 침체와 함께 '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지난 5월 친목계를 하던 A(여·34)씨 등 4명은 곗돈 1억6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계주 B씨를 광주남부경찰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A씨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3월부터 매달 200만원씩 25회에 걸쳐 순번으로 지급하는 일명 '번호계'에 가입해 곗돈을 냈지만, 계주 B씨가 "일부 회원들이 돈을 내지 않아 계가 깨졌는데 금방 원금이라도 맞춰주겠다"는 등 지급 기한을 늦추면서 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경찰이 B씨에 대해 무협의 처분을 내리자 최근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광주서부경찰도 최근 경기·인천지역 계모임 회원인 C씨가 5천만원의 곗돈을 받지 못했다고 계주 D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중이다. 광주에 사는 C씨는 고소장에서 "곗돈 5천만 원을 부었는데, 최근 계주인 D씨와 연락이 두절됐다. 사기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광주 광산경찰도 광산경찰서 모 지구대 E경사의 동거녀 F(40)씨가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이웃들에게 곗돈 등 6억6천만원을 가로 채 달아났다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완도에서는 낙찰계를 운영하던 지역 중견 건설사 회장 부인이 곗돈 수억원을 챙겨 잠적한 사건도 발생했다. 완도경찰에 따르면 G씨 등 7명은 지난 6월 "계주 H씨가 곗돈 3억여원을 챙겨 달아났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첫 달 300만원을 내고 매달 납입 금액을 줄여나가는 속칭 '낙찰계'를 들었지만, H씨가 지난 2월 홀연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G씨 등은 "계주 H씨가 지역에서 재력이 튼튼한 건설사 회장의 부인이어서 믿고 계를 들었다"면서 "H씨가 낙찰계를 여러 개 운영해 앞으로 피해자가 더 늘어나고 최대 피해액은 7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주부와 자영업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는 은행 적금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챙길 수 있고, 당장 목돈이 필요한 사람은 담보 없이 쉽게 돈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서민과 주부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하지만 계는 은행 예금처럼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계에 가입할 때는 계주와 계원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 "문근영 힘내요!"…'선플 응원' 쇄도

### 네티즌·진중권 등 '지만원 발언' 비판 잇따라

### 문근영측 "색깔 논쟁 자연스럽게 수그러질 것"

'기부천사' 탤런트 문근영에 대한 일부 네티즌의 악플(악성댓글)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의 '빨치산 심리전' 발언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각 포털사이트에는 지만원씨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비난하는 한편, 문근영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댓글이 쇄도했다.

'다음' 아고라의 청원게시판에는 18일 오후 6시 현재 '국민천사 문근영, 근영아 힘내!'라는 응원 글이 올라왔고 이에 대해 네티즌 4천660명이 서명했다.

반면 지만원씨 관련 기사에는 '선행을 해도 악플이 난무한 세상이 안타깝다''지만원씨가 보수우파의 자격이 있는가''말도 안 되는 주장 때문에 문근영의 선행이 빛을 바랬다' 등의 댓글 수천 개가 달려 지씨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진보진영의 대표적 논객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도 지씨에 대한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진 교수는 교수는 이날 지씨의 글에 대해 "반공주의가 일으킨 사회적 강박증으로 70년대에 반공 초등학생이 쓴 글을 보는 듯하다"며"개그계에서 바짝 긴장해야겠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문근영 소속사 관계자는 "문근영은 기부가 알려지는 것도, 기부행위를 알리는 것도 허락한 적이 없다"며 "이런 색깔 논쟁은 자연스럽게 수그러들 문제라 보고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18일 "우리나라의 굴절된 역사를 민족사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야지 흑색선전과 비방이 판쳐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한편 지씨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기부 행위에 딴죽을 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라며 "문제는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부 행위를 업고 빨치산 집안을 훌륭한 집안이라고 미화하는 데 있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나원참 〈7656〉 김종두

# 법조 경력 27명 신규 판사 됐다

### 광주 3명 포함…국선변호사 첫 임용 눈길

대법원은 법조 경력자 신규 법관 채용에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현직검사 12명과 변호사 등 27명을 판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오영표(28기) 변호사와 광주지검 검사 2명도 포함됐다. 오 변호사는 2006년까지 광주지법 판사로 근무하다 변호사로 직역을 바꾸었다가 다시 법복을 입게 됐다.

특히 이번 임용에서는 국선 전담변호사인 김상호(38) 변호사가 처음으로 법관으로 임용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법조 경력자가 법관으로 본격 임용된 1990년 이후 현직 검사가 판사로 옮긴 사례는 많았지만, 이번처럼 많은 현직 검사가 임용되기는 처음이다.

검사 출신 법관 임용은 ▲2006년 1명 ▲2007년 6명 ▲2008년 1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역 별로는 검사 출신이 12명, 변호사 출신이 15명이다. 여성은 남부 지검 김선영(연수원 32기) 검사와 김수정(31기)·박효선(33기) 변호사 등 3명이다.

이들은 12월부터 사법연수원에서 12주간의 신임 법관 교육을 받은 뒤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일선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더 춥기 전에…" 배추 수확 분주**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은주가 영하권으로 떨어진 18일 영암군 영암읍 망호리 밭에서 농민들이 겨울 김장용 배추를 서둘러 수확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보성 버섯농장 불 2억8천만원 피해

18일 오후 4시 30분께 보성군 조성면 윤모(52)씨의 버섯농장에서 불이 나 2억8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꺼졌다.

불이 나자 소방관 40여명과 소방차 13대 등이 동원돼 진화에 나섰으나 강한 바람에 불길이 번지면서 비닐하우스 23개 동과 인근 식당 1개 동이 전소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합선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윤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보성=선상근기자 sun@

### 누나 범행 숨기려 증거품 훔쳐

쌍나팔

○…누나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증거품을 훔친 동생이 경찰에 붙잡히는 바람에 남매가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은 18일 식육점에 침입해 컴퓨터를 훔친 A(32)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이 가게에서 돈을 훔친 A씨의 누나(36)에 대해선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6일 밤 북구 일곡동 S(27)씨의 식육점 유리창문을 깨고 들어가 CC-TV 동영상이 담긴 컴퓨터를 훔친 혐의.

○…A씨는 자신의 누나가 최근까지 S씨의 가게에서 1천600만원(추정) 상당의 금품을 횡령한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것을 알고 범행에 저질렀다는 것.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 영하 추위·첫눈…산악 사고 빈발

수은주가 영하권으로 뚝떨어지고 첫눈이 내리면서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0분께 광주시 동구 무등산 천제단 부근에서 산행중이던 이모(70)씨가 발에 골절상을 입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17일 오전 9시께에는 광산구 어등산 정산에서 이모(여·40)씨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상을 입어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또 지난 16일에는 어등산을 등반하던 송모(27)씨가 갑자기 쓰러졌고, 15일에는 무등산에서 야경을 즐기던 성모(18)군이 추락해 병원치료를 받았다.

김진수 동부소방서 구조대장은 "최근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며 "일교차가 큰 가을철에는 등산로 지반이 얼고 풀리는 것을 반복해 미끄러지거나 골절상을 당하기 쉽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입찰 수뢰' 공무원 징역 3년6월 선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18일 대규모 국책 토목공사 입찰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조달청 5급 공무원 안모(50)씨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5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뇌물을 주고 입찰 관계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G건설 전 대표이사 박모(4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권일기자 cki@

| 기 간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
| 정기예금 | 7.0% | 7.1% | 7.2% |
| 기 간 | 1년 | 2년 | 3년 |
| 정기적금 | 6.0% | 6.1% | 6.2% |